



영원한 도움

PERU | PHILIPPINES | KAZAKHSTAN | VIETNAM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STORIES OF THE MISSION

- 02 + 선교 이야기 #01_페루
- 04 해외 선교사로서의 첫걸음
송선영 리사 수녀
- 08 + 선교 이야기 #02_필리핀
- 10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
정명숙 유딧 수녀
- 14 + 선교 이야기 #03_카자흐스탄
- 16 목마른 땅 카자흐스탄에서의 복음 선포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 20 + 선교 이야기 #04_베트남
- 22 즐기도 좋을시고 형제들이 오순도순
한데 모여 사는 것
김재숙 시릴로 수녀



필리핀(학교 가기 전 급식소에서 식사)

STORIES OF OUR EXPERIENCES

- 29 + 부자와 라자로 나 스킨라스티카
- 28 + 모든 일을 주관 하시는 하나님 김 로마노
- 30 + 비야 엘살바도르에 집을 짓다 이 세바스티아노
- 34 + 삶의 중요한 부분인 축복의 자원봉사 야실 사야
- 36 + Volunteering for blessings,
an important part of life. Yacil Sayas
- 38 + 비야 엘 살바도르 2024 이 토마스
- 40 + Peru Mission Trip en Villa El Salvador 2024
Thomas Lee
- 43 + Es una bendición de Dios aquí con los
niños cada día. Cecilia Marita Rondoy Mendoza
번역: 이 글라리아 수녀
- 44 + 카자흐스탄의 아주 특별한 여름 함 소피아
- 46 + 후원자 • 후원 안내

표지 : 페루(집 짓기 작업 중 휴식시간)

- 발행처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02706 서울시 성북구 숭례로15라길 2-18
- 발행인 | 나현오 현오레니자 수녀
- 편집실 | 조금희 금희데레사 수녀
- 발행일 | 2024. 12. 01.
- E-mail | solph70@hanmail.net · Tel | 02.2171.1611
- 인 쇄 | 재영아트 (02-2276.0640)



「영원한 도움」 선교 잡지는 국내 친환경인증 용지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합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작은 실천을 합니다.
표지-양코르 160/m² | 내지-그린라이트 80/m²

“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

총원장 나현오 현오레지나 수녀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2코린 13, 11)

<영원한 도움> 모든 가족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 곳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협력자들에게도 하느님의 축복이 풍성히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하루빨리 평화와 재건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4년에 저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도직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현재 사도적 활동 나눔을 통하여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언제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의 환경은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제약(制約)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익(國益) 추구와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지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빠지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더욱 갈망하게 되고, 선교사들과 협력자들의 나눔과 봉사가 확장되는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도움> 가족 여러분!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자신을 바로잡고, 서로 격려하며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을 만나는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도 기쁘게 반겨 주시며, 봉사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미약한 우리의 나눔과 봉사도 풍성히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샘이신 성령이시여! 저희를 불타는 예수성심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어려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선교 이야기 #01_페루

STORIES OF THE MISSION

PERU

목 요안 몬시뇰의 선교 생활은
그 자신이 주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
충심으로 기뻐하며 성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걸어온 80년 중에서,

목 요안 에드워드 모리스 몬시뇰
(John E. Morris, 한국명 목이세 睦世, 1899-1987),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도회 설립자.





간가리 수녀원 뒤뜰 성모상 앞에서

PERU-VILLA EL SALVADORE

해외 선교사로서의 첫걸음

송선영 리사 수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난 2024년 3월 페루에서의 해외 선교 여정을 시작한 리사 수녀입니다. 청년 때 짧게나마 캄보디아 해외 선교 체험이 있긴 하지만, 해외 선교라는 하느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듣고, 부르신 하느님만을 믿고 기꺼이 “네!”하고 응답드리며 이곳 페루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제29차 해외 선교사 교육을 3주간 받고 왔지만, 해외 선교지에서 삶의 시작은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 중 제일 큰 어려움이라는 언어! 스페인어 알파벳과 발음만 겨우 알고 온 저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도, 전례에서도 벅어리이자 귀머거리였습니다. 미사 전례 안에서 알아듣고 말할 수 있던 단어는 “Señor”(주님) 뿐이었기에 주님만을 되뇌고 부르며 새롭게 마주할 어려움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길 청했습니다.

페루에 도착해서 공동체에서 2주간의 적응 시간을 가진 후 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그동안 많은 수녀님이 언어를 배운 베티 선생님 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선생님과 단둘이 공부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나이, 문화 등의 다름을 넘어 친구가 되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부에 더 집중하기 위해 선생님 집에서 걸어서 40분 거리인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국제 수도회답게 페루, 베트남, 필리핀, 한국 수녀님들이 모여 사는 그곳은 스페인어만 사용하기에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수녀님들의 도움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기처럼 단어 하나하나와 페루 문화(음식, 시장, 시사 문제 등등)를 알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못 알아듣는 말이 훨씬 더 많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함께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한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 환경, 날씨, 음식이 모든 것에 적응 중입니다. 위의 인연들 외에도 함께 살아가는 수도 공동체 수녀님들, 현지 신자들, 미국 단기 선교팀원들 등과 만나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큼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이따금 격정과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의 힘을 체험하며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야 엘 살바도르 공동체로 돌아와 더 사람들과 가까이 만나야 하는 소임으로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합니다.

아직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함께 살아가며 듣고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하느님께서 저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여쭙 보며 찾아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루하루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의 여정 속에서 저를 통해 늘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그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모든 시간 안에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Señor mío, Dios mío” (요한 20,28 참조)께 영광의 찬미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기도를 청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Gracias a Dios.

여러분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Dios bendiga a todos siempre.



베티 선생님과 언어 수업



산 마르틴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유희시간(산 마르틴 공부방)



페루 독립 203주년 기념행사 (산 호세 공소팀)

DAILY LIFE IN



01_애들랜타 단기 선교팀과 성모의 밤 전례 후 02_노인 잔치 음식준비 03_집 짓기 자재 나르기 04_산 마르틴 공부방 어린이들과 함께
05_집짓기 06_페루 독립 203주년 기념행사(쁘라데라스 공소 팀)

VILLA EL SALVADOR CANTO GRANDE CANGARI



07_간가리 공부방 어린이들 간식시간 08_치우와 공소 미사 후 교우들과 점심 09_집 짓기 장소로 가는 길
10_양헬 본당 주임 신부 착좌식 11_간가리 초등학교 방문하여 아이꾸쵸 사랑 단체에서 전달받은 가방 나눔 12_탈출기 그룹 개강

선교 이야기 #02_필리핀

STORIES OF THE MISSION

PHILIPPINES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
(복음의 기쁨 1항)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고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선교 대상이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이고 그들에게 무한정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제14차 정기총회 사도직 보고서 중에서」





급식소 점심 준비

PHILIPPINES-NAVOTAS

하느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

정명숙 유닛 수녀

필리핀 나보따스에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이 많으니, 이곳이 하느님 나라가 아닌가 싶다(루카 18,16 참조). 아이들은 샤워하고, 빗 자국 나게 머리를 빗고, 흰 교복에 까만 구두까지 신고,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걸어오다가, 땀방울을 달고 손도 발이 되어 급식소가 있는 건물 4층을 기어 올라온다. 수업 전후 가능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학교 옆에 있는 우리의 급식소는 넓은 공간을 얻다 보니 3층과 4층에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오전 수업을 마쳤거나 오후 수업 전에 교복을 입은 멋진 아이들이 매일 밥을 먹으러 온다. 중기투성인 머리와 벌레 물린 상처 가득한 다리와 맨발에 반바지만 걸치고 오는 아이들도 있다. 한 끼 배불리 먹기 위해 먹고 또 먹어서 배가 아파서 견지를 못한다. 똥똥한 배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기도 하고, 지퍼를 잠글 수 없어서 옷을 꼭 잡고 가는 아이들도 있다. 동생 주려고 음식을 숨겨가기도 한다. 급식 대상이 아닌 형제나 친구들도 급식하게 해 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이 있다. 계단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고 집에 계신 엄마가 아프다고 견지를 울리며 비타민 하나를 더 달라고 간절한 눈망울을 보이기도 한다.

사는 집에 가 보면 대가족에 의식주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이루어지고, 고양이와 개와 바퀴벌레와 파리와 모기도 함께 살고 있다. 공터에서 맨발로 망아지처럼 뛰어놀던 아이들은 우리를 발견하는 동시에 뛰어와 축복을 받기 위해 손을 잡아 이마로 가져간다. 교복을 입은 때와 다른 아이들이 되어 있다. 집에는 화장실도 샤워실도 없고 가정사도 복잡하고 부모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 아이들은 늘 배가 고프고 슬픔에 쓰러질 것만 같은 일에도 의연하다.

우리 수녀들은 2007년부터 급식, 장학생 지원, 유치원, 성서 및 양성, 의료, 체험 방문객 맞이 등(현재 의료는 필리핀 요셉의원에서 함)의 일을 하고 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겪게 되는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 주고 싶은 마음으로 후원자들의 소중한 정성과 마음을 입고 열심히 살아 내고 있다.

단체와 개인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의 영양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유치원을 재개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장학생들을 지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성경 지원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필리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한 명 더 급식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린다. 부족함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쪼개어 나누어 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화폭에 담아 보고 싶은 마음이다. 그 아름다움은 뜨겁게 고맙기만 하고, 열정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이는 나보따스 어린이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기적들이며 그 아이들을 미소 짓게 하는 천국이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나보따스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기쁨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봉사자와 식사 준비



급식소 상차림 보고 웃음 짓는 어린이



배식



학교 마치고 식사하러 온 어린이



급식소 계단을 기어 올라오는 소년

01_필리핀 성서모임 창세기 1차 연수 수료증 수여 후 02_Cubao 주교좌 성소 주일 Vocation Fair 03_Cubao 주교좌 성소담당자 월례회의 후 04_중신서원예정반 수녀들 현장체험(쓰레기 분리작업장 방문) 05_급식소 봉사자, 아이들과 함께 06_Buwan ng wika (언어의 달) 필리핀 전통부채 꾸미기 07_유치원 축복식 후 08_쌀 나눔 위해 배달 트럭 타고 09_가정 방문 10_장학생 월모임





선교 이야기 #03_카자흐스탄

STORIES OF THE MISSION

KAZAKHSTAN

내가 존중하는 사람과 이루는 관계에는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위해서만 사는 것도
아니며, 내가 그와 연결되어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고려되어야만 합니
다. 우리가 이루는 강하고 참다운 관계는 우
리를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다른 이들
을 향하여 우리를 열어 줍니다.

(모든 형제들 89항)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회칙





신자들과 동방정교 경당 방문

KAZAKHSTAN-TALDYKORGAN

목마른 땅 카자흐스탄에서의 복음 선포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이사 35,1)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 쉬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공동번역 사도 17, 28).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곳 카자흐스탄으로 떠나온 지 벌써 12년이 되어 간다. 회교도 국가의 낯선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기회만 되면 복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왔고 얼마티 한인 본당 신부님께 여러 번 성서모임을 하고자 제안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옛 수도인 알마티에는 한인 공동체가 있고 한국 사제가 없는 공백 기간이 있었다. 그 사이 수녀들이 교대로 두 달씩 알마티에서 러시아어 공부를 하면서 한인 본당을 도왔고 첫영성체 및 예비자 교리, 복사단 전례 교육을 하였다. 자매들(7~8명)을 모아 렉시오 디비나를 시작하였고 자매들이 성서에 맛을 들이게 되어 성서그룹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진행할 수가 없었다.

2015년 렉시오 디비나를 시작한 것은 카자흐스탄 복음 선포에서 아주 미미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다. 2022년 말 오 은영데레사 수녀가 《축복받은 성경 읽기: 창세기 문제집》 한국어판을 소개하여 한인 본당에서 시작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본당을 위해서도 ‘축복받은 성경 읽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성서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적극 추진하였다. 한국에 있는 러시아어 교수에게 부탁하여 이 책자를 신속히 러시아어로 번역하였다. 이 원고를 알마티 교구장 호세루이스 주교님과 몇 분이 교정하였다. 그리하여 2023년 6월, 성서와함께 출판사에서 《축복받은 성경 읽기: 창세기 문제집》 러시아어판이 출판되었다.

주교님께서서는 추천사에서 이 책을 ‘모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성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된 책자’라고 소개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구원의 힘을 알게 되도록 이끄실 것이며 이것은 바로 사랑과 기쁨의 삶

에 대한 주님의 초대"라고 아름답게 말씀하셨다. 이 소책자가 러시아어로 출판된 것이 너무나 기뻐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카자흐스탄의 모든 교구와 본당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에서 성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우리 수녀들이 활동하는 탈디코르간 본당에서는 2023년 10월 초, 알란 주임신부가 동의하여 '축복받은 성경 읽기' 창세기를 청소년 그룹과 어른 그룹으로 나누어 시작하였다. 청소년 그룹은 은영데레사 수녀가 이끌었고, 어른 그룹은 살레시아 수녀가 맡아 사무장 에리카 자매를 포함하여 몇몇 신자들(8~11명)이 함께 그룹을 형성하여 진행하였다. 2024년 2월 말에는 두 번째 어른 그룹을 시작했고, 청년 그룹은 지금도 창세기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과거에 청년 성경그룹 봉사를 하며 은혜로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곳에서 러시아어로 '축복받은 성경 읽기' 창세기를 하게 되니 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어가 주는 독특한 매력과 의미로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깊이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숙고한 말씀을 나누는 데에 한계가 컸지만, 자매들과 나눔을 하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새삼스럽게 느꼈다. 나의 과거와 생각, 내가 만난 하느님과 일상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나누며 이들과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큰 복이 되고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보기 좋더라'는 말씀이 눈을 맑게 해 주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 주는 기회가 되어 무한히 감사드리는 시간이었다.

이곳 본당을 필두로 알마티의 본당과 공소, 타 교구도 자극을 받아 '축복받은 성경 읽기'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2024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에 알마티 삼위일체 성당에서 미사 및 서원을 새롭

게 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후 지하 강당에서 사제와 수도자 20여 명에게 '축복받은 성경 읽기' 책자를 나누어 주고 소개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제 모임에서는 주교님이 이미 소책자를 소개하여 모인 성직자, 수도자들이 큰 관심을 가졌고 사제들이 저마다 앞다투어 소책자를 여러 권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

그 후 4월 말에 코나에프 본당 신부가 신자들에게 '축복받은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자 설명을 부탁하여 본당 알란 신부와 살레시아 수녀, 그리고 두 자매와 함께 코나에프로 가서 오리엔테이션 겸 책자를 설명했고, 함께 간 두 자매가 만난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첫 모임에 12명이나 모이는 열성을 보였다.

그 후 《축복받은 성경 읽기: 탈출기 문제집》 러시아어판이 6월에 출판되었고, 8월에 이곳 종교국에서 책자 이용 승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9월부터 '축복받은 성경 읽기' 탈출기를 어르신 그룹에서 시작하였고, 청년 그룹은 창세기를 마치는 대로 시작할 계획이다. 알마티 한인 후원 자매들을 위해서도 은영데레사 수녀가 줌(Zoom)으로 모임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아직 준비 중이지만 곧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오리엔테이션 및 성서 입문 강의를 부탁한 상태이다.

시작은 작은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하나 복음 말씀이 주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메마른 이 땅에 이슬비가 내려 땅을 서서히 적시듯 사막에 꽃이 피게 될 큰 희망을 품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음에' (사도 17, 28 참조) 하느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하는 말씀을 되새기며 이 지면을 통하여 선교지 후원자들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01



02



03



04

01_축복받은 성경 읽기 창세기 코나예프성당 초청하여 오리엔테이션
 02_축복받은 성경 읽기 창세기 청소년 모임 03_성직자 수도자 모임에
 서 축복받은 성경 읽기 소개 04_현대병원 의료봉사 신자들과 딸따고르
 간 성당 방문 05_수지침 진료 06_세례식 07_어린이, 청소년 여름 캠프
 08_알마티 청소년 파정 파견 미사 09_종교국에서 '청소의 날' 종교인
 들 초청하여 공원 청소 10_한글교실 학생 수업 11_위령성월 묘지 방문
 기도



05



선교 이야기 #04_베트남

STORIES OF THE MISSION

VIETNAM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갈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세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선사업의 NGO는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정배인 교회는 아닙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3년. 3. 14. 추기경단과 함께 드린 미사 강론에서)



ăn Hóa Hàn Quốc

문화 체험



은총잔치 탈 만들기(땀하이성당)

VIETNAM

종기도 좋을시고 형제들이 오순도순 한데 모여 사는 것

김재숙 시릴로 수녀

베트남에 와서 첫 밤을 보내는데 세찬 종소리가 울려 깜짝 놀랐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2분. '몇 번 울리고 말겠지'라고 생각한 종소리가 무력 50번이나 울리고 멈추었다. 새벽 5시 미사 전에 온 동네를 울리는 종소리다. 아늑한 옛날 우리네 시골 마을 공소에서 울렸던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베트남의 첫 생활을 시작하였다. 오늘도 종소리는 어김없이 울린다.

2023년 4월 1일, 부르심을 받고 베트남에 온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다. 10년 전 중국 선교에서 돌아온 지 꼭 10년 만에 베트남으로 온 것이다. 중국 경향이 없었다면 해외 선교를 하겠다는 용기가 생겼을까. 이번에 해외 선교를 원했던 것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수도원 성소자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이다. 2년을 본원에서 소임하며 40년 전 본원 성당을 꼭 채웠던 하얀 머릿수건의 수련자가 이제는 열 자리 숫자도 안 되는 것을 보니 마음 한편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들었다.

어느 날부터 한 명씩 오기 시작한 베트남 지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도 성소자가 감소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평균 연령이 30대인 젊은 나라 베트남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다. 내가 직접 젊은이들을 만나 성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평범한 일상사를,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영성을 공유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구 한 곳에 우리와 같은 영성을 사는 자매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다.

베트남에 와서 지난 1년을 보내면서 많은 성소자를 만나지는 못했다. 한두 명과 한 공간에서 살면서 너무나 다름 안에서 오는 당혹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로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일생을 봉헌하겠다는 지향을 보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

며 우리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지난 성탄 때 '선교사들을 사랑하는 모임' (이하 '선사모')에서 준 선물을 나누어 주러 동나이 탄호아 성당에 가서 행복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베트남의 남쪽 지역 호치민은 캄보디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고 중부 지역 나랑과 북쪽 지역 하노이는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호치민에서 가까운 동나이에는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이 많다. 여기서 태어난 이주민 아이들은 호적을 만들지 못해서 정규학교에도 갈 수 없고 나라에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 참 딱하다.

탄호아 성당 주임 히엔 신부가 이런 아이들을 일정 기간 교육해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쉽게 일자리를 찾는 곳이 유흥업소 등이 라고 한다. 마음 아픈 이들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 더 마음이 간다.

우리들은 '선교사들을 사랑하는 모임' 도움으로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1년 치 점심 식사비를 도와 주고 있다. 매년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우리에게 아이들은 고마운 마음을 환영 노래로 표현해 주었다. 선사모 지원의 선물이 아이들에게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인 듯 아주 기뻐하였다. 다양한 선물을 듬뿍 담은 선물 보따리를 끌어안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 행복하고 기뻐다.

뭔가 큰일을 한다기보다 작은 것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서 오늘 하루도 종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안나 할머니



한국 문화 체험(김밥 만들기)



설을 맞아 전통 옷을 입은 사제와 교우들



수도원 홍보 행사

DAILY LIFE IN

VIETNAM



01_은인 꼬영 형제 축일 축하 02_수도회 홍보 행사 중 간식 03_선교사들을 사랑하는 모임 장학금 수여 후 단체 사진 04_팜자엠 교구 공동체 방문(인천신학대 갈 예정인 신학생들) 05_골목 안 성모님 상 06_장학금 전달 07_환자 방문 08_가베 교육프로그램 참여 09_이주민 어린이들 점심시간 10_집 주변 11_공부방 어린이들 미술 시간에 나뭇잎 물고기 그림그리기







우리들의 이야기 - 선교 체험기

STORIES OF OUR EXPERIENCES

우리들의 이야기는 페루 - 필리핀 - 카자흐스탄 - 베트남 선교를
동반해 주시는 분들의 현장 체험과 소감으로 이루어집니다.

PERU-VILLA EL SALVADOR

부자와 라자로

나 스킨라스티카(애틀랜타 한인 순교자 성당)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루카 16,19-21).

물과 음식이 부족한 곳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성실하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페루 선교여행 중에 특별히 이번에 제 눈에 띈 모습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흙먼지가 가득한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페루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갖지 못했던 것들의 모든 위로를 하느님 나라에서는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지만, 저는 과연 주님께서 몸소 보여 주신 연민의 삶을 일상 안에서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아 엘살바도르 수녀원 방문

집을 짓느라 만만치 않은 노동으로 수고했던 동료들과 종신서원 예정반 수녀님들의 아낌없는 희생으로 한 가정에 전달한 하느님의 사랑은 참으로 감동적이었고, 매일 미사와 성모님께 드렸던 정성 어린 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선교팀장 로마노와 토마스, 세바스찬, 야실, 야곱 수녀님, 마르타 수녀님, 마리펠릭스 수녀님, 그리고 글라리아 수녀님과 함께 매일 하느님 체험의 시간을 나누며 쌓아 갔던 우리의 우정이 주님께도 기쁨이었으리라 생각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매우 행복한 단기 선교의 시간을 허락하신 아빠 하느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과 찬미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주관 하시는 하느님

김 로마노(애틀랜타 한인 순교자 성당)

2015년 페루 리마 남쪽 루린교구 비야 엘살바도르 본당 뿌라데라스 공소 언덕에 집을 짓는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단기 선교가 나의 신앙과 삶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 컸다. 그래서 다시 찾은 뿌라데라스 언덕은 너무나 반갑고 친숙했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궁금해서 함께 갔던 선교팀들이 이상할 정도로 지난 여러 해 동안 집을 지어 준 집들을 찾아 그 많은 계단을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다니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해마다 비야 엘살바도르에 갈 때는 12~13명 정도의 인원이 집 두 채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4명밖에 되지 않아 집을 한 채만 짓기로 하였다. 4명이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첫째, 이번에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종신서원 예정반 수녀님 세 분이 함께하시게 되어 집 짓기와 기도, 미사, 나눔을 매일 함께하여 무리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둘째, 이번 선교에서 가장 힘들었던 언덕 위로 건축 자재를 나르던 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다녔던 페루의 형제자매님들이 내 일처럼 끝까지 자재를 운반해 주어 큰 힘이 되었다.

셋째, 해마다 집 짓는 노하우가 생겨 점점 더 집이 좋아졌지만, 이번엔 특히 가장 높이 있어 일상생활이 아주 힘든 프레도 형제와 에밀리아 자매의 집을 공소 바로 옆에 있는 비야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쁜 집으로 바꿔 주셨다.

넷째, 비야에 집 짓기를 처음 오는 다른 형제자매와는 달리 여러 번 집 짓기 경험이 있는 나에게 하느님은 4명의 수녀님과 4명의 단기 선교팀으로 이루어져 아침 기도를 하게 해 주셨다. 단기 선교팀이 아닌 수도자들의 중심으로 하는 성무일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수도원 체험 같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해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들은 하느님의 계획안에 살고 있지만 매일 마시는 공기나 물처럼 그분의



집 짓기



태권도 시범

계획이나 주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우리에게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육체노동으로 약해지는 나의 몸을 느낄 수 있는 단기 선교는 매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에도 단기 선교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들을 해 주었다.

모든 단기 선교팀과 매 순간을 함께해 주신 예수님과 일정을 총괄하여 계획해 주신 글라리아 수녀님, 기타와 찬양으로 우리의 나눔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준 아곱 수녀님, 한마디 한마디 뼈 있는 말들로 나눔 시간을 즐겁게 해 주신 마르타 수녀님,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 주시는 행동파 마리펠릭스 수녀님, 해마다 애틀랜타 단기 선교팀의 공식 통역사 역할을 하며 선교팀과 함께 성장해 어느새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듯한 야실 자매님, 남들이 다 바빠서 못 간다고 할 때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함께 갈게” 하고 기꺼이 응답해 주신 세바스티아노 형제님, 이 모든 선교팀의 식사를 대장금의 손맛으로 매일 준비해 준 스콜라스티카 자매님, 우리 팀의 웃음

비타민과 모든 힘쓰는 일을 해 준 토마스 형제님, 자재 나를 때 기꺼이 우리와 함께해준 동네 주민들까지... 생각하면 이번 단기 선교팀은 너무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여정이었다.

단기 선교 여정 중에 집을 짓고 노동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찬미와 태권도를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 특별한 талан트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단기 선교팀이 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특별한 재주나 물질 등으로 가르침을 주거나 집을 지어 주는 것보다, 가난한 이웃들의 삶으로 들어가 함께 일하고 음식을 나누고 작은 것들에 행복해하며 그들의 삶을 더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인 것 같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페루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아 엘살바도르에 집을 짓다

이 세바스티아노(애틀랜타 한인 순교자 성당)

첫날 기대를 안고 도착한 페루의 수도 리마 공항의 아침 공기는 선선하였다. 거기서 1시간 이동하여 도착한 리마의 외곽 지역인 비아 엘살바도르의 풍경은 1970년대 한국의 지방 도시를 옮겨다 놓은 것처럼 정돈되지 않은 분위기이다. 흙이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인데도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를 계획하여 무엇인가 비대칭적인 모습이 특이하다.

비아 엘살바도르 공소 옥상에서 보는 밤하늘은 특이하게 달은 볼 수 있으나 별을 볼 수 없이 뿌연 전경이다.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여서 항상 모래 먼지가 날리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산봉우리마다 줄줄이 노란 가로등이 빛나고 있어, 마치 비현실적으로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느낌이다.

글라리아 수녀님의 소개로 시작된 첫날 일과는 평온하다. 그러나 18년째 페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은 아직도 번쩍이는 칼날과 같이 서늘하고 엄격하면서도, 모든 것을 초월한 물 같이 조용하다.

둘째 날 오전에는 페루의 고대문명 파차카막 유적 발굴지를 방문했다. 시대별로 다른 돌과 벽돌로 층

층이 벽을 쌓은 모습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맨 아래의 잉카 문명 당시에는 돌로 쌓고 그 위에 시대별로 다른 공법의 벽돌로 성벽을 쌓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조악한 품질을 보여 인간들이 즐겨하는 편의성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오후 5시부터 자재를 집터로 옮기기 시작했다. 집터가 산 정상에 있어서 최대한 정상 가까운 지점에 자재를 하역해야 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짐차에 너무 많은 자재가 실려 있어 정상에서 약 80미터 아래에 하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하차한 자재를 밤새 그 자리에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몇몇 동네 사람들이 합류하여 조금씩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2시간 남짓하여 모든 자재를 정상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셋째 날에는 마침 공소의 본당 53주년 기념 미사가 있었다. 본당이 좁아 성당의 야외 운동장에서 열린 축하 미사에 참석하고, 덤으로 바자회에서 페루 전



집 짓기



간식시간

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다. 사람들은 모두가 친절하고 상냥하다. 한국에서 선교 봉사 온 것을 알고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다.

오후에는 전철을 타고 북쪽으로 50분을 이동하여 간또 그런데 공소를 방문했다. 이곳 비야 열살바도르보다 더 심한 경사길과 돌산에 산꼭대기까지 층층이 집을 지어 놓은 모습에 놀랐다. 태곳적부터 돌을 이용하는 데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그 유전자는 아직도 그들의 핏속에 흐르고 있나 보다.

약 20년 전 처음 간또 그런데 공소가 만들어질 때는 허허벌판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공소 바로 뒤에 요한 바오로 2세 공원이 생겼고, 주변의 중간중간 공터에는 정상 규격으로 보이는 축구장이 2개, 미니 축구장도 2, 3개 있었다. 퇴근 시간 무렵, 꽤 많은 사람이 북적이며 운동을 하는 모습은 이제 태동 단계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가 꿈틀거리는 듯하다.

4일째 되는 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아침 6시 기상하여 6시 30분에 기도를 하고 7시에 평화방송으로 미사를 봉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8시에 식사를

하고 9시부터 30분가량 산 동네를 등반하여 종일 작업 후 오후 4시 반에 내려와 5시에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상이다.

이번 작업은 인원은 총 9명(선교팀 4명, 수녀님 2명, 현지 목수 2명, 집주인 1명)으로 적은 인원은 아니다. 그러나 집의 크기가 커지면서 방의 개수도 6칸으로 늘어나 작업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어색해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협동 동작도 좋아져 속도가 났다. 점심이 현장으로 배달되어 이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작업 시간을 확보한 것도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한몫했다. '경험이 깡패'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공사판에 처음 투입된 종신서원 예정반 수녀님들조차 낯이 숙련된 모습을 보였다.

작업 중간중간에 두 현지 목수와 봉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하는 과정은 이색적이다. 왜냐하면 주로 작업반장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작업 현장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이곳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따르려는 모습을 보여 감탄을 자아낸다. 아마도 페루 사람들의



집 축복식 후



태권도시간

느긋하고 분쟁을 싫어하는 성격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작업은 큰 소리 한번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간가리 출신 야실이 현장에서 통역 업무를 도맡은 덕에 진행이 더 수월하였다. 야실은 28세의 페루 아가씨로 현재 리마에서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이다. 15년 전 우리 성당에서 처음으로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페루의 간가리라는 벽촌으로 선교 활동을 나갔을 당시 13세의 소녀로서 선교팀에게 마을 안내 주며 성장한 친구이다. 매년 우리 성당에서 선교 활동을 갈 때마다 1주간씩 휴가를 써 가며 같이 봉사하는 모습은 감탄을 주기에 충분하다. '왜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본인이라는 것을 야실은 알까?

어느 날 저녁은 평일 미사를 드리는데, 같이 작업하는 현지 목수 중 한 명인 Cocky라는 친구가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성당 입구에서 우리를 근엄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평소 워낙 까불거리던 친구여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놀람기도 했다. 이혼 후 7년을 독신남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 동네에서

홍반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주임신부인 양헬 신부님은 젊고 열정적인 분이시다. 다만, 그 정열이 지나치셔서 말씀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상 시작할 때, 본 강론 시, 그리고 마침 기도를 드린 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결국 미사는 통상 1시간 30분 만에 끝나게 된다. 그래도 순한 신자들은 그 긴 시간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작업 마지막 날, 남은 힘을 다 내어 집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결국 미진한 부분을 남긴 채 작업을 완료할 수밖에 없었다. 지붕을 다 올리고 방 6칸과 화장실, 취사장을 완료한 후 마지막 칠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같은 마을 사람들이 공사 현장을 보기 위해 올라왔다. 아마도 집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확인해 보고자 온 모양이라고 생각한 순간, 중년의 여인 한 명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와 우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번 공사 중 가장 감동한 순간이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만 통하는



손경수 사제 팔순 미사 후 식사

말인가 보다. 가난한 이곳 비야 엘살바도르 마을에서 사는 이웃이 잘 되었을 때 축하하는 마음이 더 강한 모양이다. 한 주간의 노고는 쉽지 않았지만, 그들에게서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은 셈이다.

저녁에는 페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메리 놀회 손경수 신부님과 수녀원 경당에서 미사를 드린 후 식사를 같이했다. 오늘 마침 80세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여 의미가 깊었다. 45년 전 페루로 파견되어 현재까지 선교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맹인들에게 마사지를 가르쳐 삶을 영위토록 하고 계신다. 배운 마사지 실습을 교도소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우려했으나, 오히려 죄수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교정의 효과도 좋다고 한다.

메리놀 미국 선교사님들과 같이 기거하고 있어, 한국 음식을 이곳 수도원에 오실 때에만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듣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오늘 밤도 마을은 주말 파티와 폭죽으로 시끌벅적하다. 페루의 주말 저녁은 시간이 길다.

떠나기 하루 전날, 아침 7시에 일어나 본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미사 시간에 임자 없는 개 한 마리가 성전에서 어슬렁거리더니 급기야는 제대 위까지 올라가 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도 서두르거나 놀라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나를 놀라게 하였다. 미사 후에는 본당에서 지역 내 공소를 연결하는 루트로 성체를 모시고 걸어서 순회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동네를 둘러볼 좋은 기회였다.

오후 5시경에 양행 주임 신부님의 집전으로 새 집 축복식을 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입주를 축하했는데, 평소 과묵하던 집주인 Fredo가 짧은 감사 인사로 'Gracia'를 말한 다음, 눈물이 나오는지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버린다. 그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새집을 마련해 주고 싶어 했는지, 사람들의 도움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Fredo의 가족과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이는 마을의 밤 전경은 숨막히게 아름답다. 그 전경을 뒤로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봉사자들과 종예반 수녀님들의 모습은 만족한 듯 느긋하다.

삶의 중요한 부분인 축복의 자원봉사

야실 사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받았고, 감사합니다. 자원봉사는 여러 해 동안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자원 봉사 임무를 돌아보면, 각각의 임무가 늘 처음처럼 흥미진진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같은 흥분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각 임무를 하느님이 저에게 맡기신 신성한 소명으로 여기며, 더 큰 노력과 헌신을 기울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특히 비야 엘살바도르에서의 임무는 우리가 형성한 놀라운 팀과 가족, 그리고 우리가 남긴 깊은 영향을 통해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뛰어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바스티안 선생님, 나 스킨라스티카 선생님, 김 로마노 선생님, 이 토마스 와 훌륭한 수녀님들. 우리는 정말 놀라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최 안드레아 선생님의 부재를 깊이 느꼈지만, 그분이 여러 해 동안 쌓아 왔던 정신과 유산이 우리를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우리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헌신과 사랑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올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세노라 에밀리아와 세노르 프레도의 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힘든 작업이었고, 특히 우리 중 일부는 그러한 격렬한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책임감과 사랑으로 도전을 받아들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결심은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하여, 힘든 일을 보람찬 여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단기 선교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언덕 꼭대기에서 점심을 함께 나누고,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며, 미사에 참석하고,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일상적이거나 중요한 각 활동 하나하나가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했고, 우리의 목적과 단결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삶은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집의 마지막 손질을 마치고 축복식을 할 때, 감동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었습니다. 가족의 기쁨과 감사가 느껴졌고, 흘렸던 땀방울과 아픈 근육들이 모두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공동체의 힘과 기부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단기 선교팀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하느님이 허락하신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페인트 칠



자원봉사 활동하는 아실

희생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얻는 엄청난 기쁨과 충만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저는 이타심과 연민의 진정한 본질을 배웠습니다. 이는 사랑, 지원, 친절을 주고받는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저는 이 봉사의 변혁적인 힘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는 우리가 돕는 사람들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은 자아를 형성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잘 맞추고, 우리가 받은 축복에 더욱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제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며, 그분이 허락하시는 한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다짐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제 삶에 의미와 기쁨을 주는 소명입니다.

돌이켜보면, 비야 열살바도르에서의 자원봉사는 단지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희망, 회복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의 각 경험은 우리가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축복을 나누어야 한다는 믿음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각 임무는 저에게 개인적 성장과 영적 발전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매 경험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저 자신, 신앙, 공동체의 힘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언덕 위의 집은 공통된 목적과 인류애로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자원봉사는 제 삶을 계속해서 풍요롭게 하며, 각 임무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임무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 임무는 성장하고 주고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기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사랑합니다!

Volunteering for blessings, an important part of life.

Yacil Sayas, (Tuesday June 25, 2024)

Beloved,
I am blessed and grateful. Volunteering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my life for many years. Reflecting on my countless volunteer missions, I realize that each mission feels as exciting as the first. Every time I embark on a new mission, I am filled with the same excitement and determination to give my very best. I approach each mission with the belief that is a divine calling, a task God has entrusted me, and I strive to put more effort and dedication into each one. This year was no exception, our mission in Villa El Salvador was particularly memorable, marked by the incredible team and family we formed and the profound impact we made.

I will begin by presenting our exceptional team: Hongchul Lee SSN, Scholastica Na SSN, Yong Jun Kim SSN, Thomas Lee and the wonderful Sisters. What an incredible family we built. Although we deeply felt the absence of Andres SSN, his spirit and legacy he built over the years guided us through. His influence was a constant reminder of the dedication and love required to complete our mission successfully.

This year, God entrusted us with the task of building a house for the family of Señora

Emilia and Señor Fredo. The physical labor involved was intense, particularly for those of us unaccustomed to such a strenuous work. However, knowing that it was God's will, we embraced the challenged with responsibility and love, allowing everything to flow smoothly. Our faith and determination fueled our efforts, transforming the arduous task into a fulfilling journey.

Every moment of this mission is cherished, the memories are vivid: walking up the stairs, sharing lunch at the hilltop, taekwondo classes, participating in Mass, and simply spending time together. Each activity, whether mundane or significant, was imbued with meaning and joy, reinforcing our sense of purpose and unity. Living this way, sharing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serving according to God's will, is a beautiful experience.

As we placed the final touches on the house, a wave of emotions washed over us. The family's joy and gratitude were palpable, making every drop of sweat and aching muscle worth it. Their smiles were a testament to the power of community and the importance of giving back. It reminded me why we volunteer: to make a tangible difference in the lives of others.



집 축복식 후

Being part of this extraordinary group is a privilege and blessing. The sacrifice we make is small compared to the immense joy and fulfillment we gain from serving others. Through this work, I have learned the true essence of selflessness and compassion. It is a continuous journey of giving and receiving love, support and kindness. I have witnessed firsthand the transformative power of service, not only in the lives of those we help, but also within ourselves. It shapes us into better individuals, more attuned to the need of others and more grateful for our own blessings. Each time I participate in such volunteer work, I am acutely aware that it is not I who acts but God working through me. I am merely His instrument, and I am committed to serving for as long as He allows me. This commitment is not just a duty but a calling that fills my life with meaning and joy.

In retrospect, volunteering in Villa El Salvador was not just about building a house; it was about building hope, resilience, and a sense of community. Each experience as

a volunteer reaffirms my belief that we are called to serve, to uplift, and to share our blessings with those in need. Each mission offers me a unique opportunity for personal growth and spiritual development. I learn something new with every experience, gaining insights into myself, my faith, and the power of community. The house on the hill stands as a symbol of what we can achieve when people come together with a common purpose and shared sense of humanity. Volunteering continues to enrich my life, teaching me that with each mission, we could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May our efforts inspire others to serve and bring light to the lives of our brothers and sisters who need it most. I look forward to many more missions, each one a chance to grow, to give, and to be part of something greater than myself.

God sends people our way for a reason, and that reason is for us to grow in faith together and be one in Christ.

God bless you; I love you!

페루 미션 여행: 비야 엘 살바도르 2024

이 토마스(애틀랜타 한인 순교자 성당)

정말 눈이 뜨이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기대가 별로 없었지만, 끝날 때는 이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 적이 없었고, 이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페루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페루로 갈 준비는 출발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번 미션이 과거와는 매우 다를 것이 명백했습니다. 첫째, 페루에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끌고 지도해 주신 안드레스 선생님이 이번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올해는 10명 이상의 대규모 팀이 아닌 4명으로 구성된 작은 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일한 젊은 성인이었고, 큰 나이 차이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했습니다.

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가려고 하는가?” 솔직히 그때는 좋은 답변이 없었고,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미션이 진행되기 전부터 이 여행에 참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리마의 비야 엘살바도르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이 결정을 듣고 따르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은 공항으로 가는 조용한 버스 여행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4명의 팀원은 앞으로 2주 동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 로마노 선생님, 세바스티안 선생님, 스킨라스티카 선생님, 야실과 모든 자매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의지로 맺어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하나가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달성한 미션입니다. 목표는 공소 건물에 임시로 머물고 있던 대가족을 위해 적절하고 편안한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땀을 흘리며 리마를 내려다보는 언덕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 프레도, 에밀리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못을 박고, 판자를 칠하는 일까지, 우리는 이 사랑스러운 가족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식처를 가질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함께 잠자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나 마침내 집이 완성되었고, 본당 양헬 신부님께서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신부님 앞에서 눈물에 젖은 아버지는 가족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며, 우리가 하는 미션이 비록 짧고 작게 느껴지더라도 누군



집 짓기 자재 나르기



페이트 칠

가의 삶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번 미션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기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월요일 아침 6시에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기도는 제 신앙에서 항상 약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나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미사에서 복음부터 성체를 받는 것까지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진정으로 참여하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침 기도는 그날의 목표를 밝히고 우리 팀의 안전과 행복을 하느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 삶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체를 모시는 것은 우리가 긴 하루를 준비하는데 있어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영적으로 저를 채워주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미션 여행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제게는 큰 교훈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항상 제가 열정을 가진 일이었고, 이번에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그 열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매일 저녁 집 짓기 작업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 때면 뺏속까지 지

친 상태였지만, 수녀원 옆 공부방에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외침이 점점 더 커졌고 그것은 나에게 모든 에너지가 다시 생겨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서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이들과 발차기와 얼굴 막기 등 태권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에너지, 그리고 열정을 가졌는지 보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열정은 제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그들이 이러한 배움을 가족과 공동체에 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정을 마치며, 저는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통해 페루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을 경험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면서 제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이곳에서 봉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겪은 이 여정을 통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눈이 뜨이는 경험을 했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페루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페루 미션 여행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립니다.

Peru Mission Trip en Villa El Salvador 2024

By: Thomas Lee

What an absolutely eye opening experience this has been. May I start by stating that initially, my expectations were in all honesty pretty low in the beginning. Yet by the end, I could not have not felt a greater sense of accomplishment nor had a better time, and I didn't even want to leave Peru! All glory and thanks to God for putting me on this path.

Preparation for Peru began months before our departure, and from the start it was evident that things would be very different from past missions. Firstly, there would be no Andres 선생님, who has been an absolutely central figure in leading and guiding our church through Peru,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Secondly, our team would consist of a small number, as we were but 4 who were to serve this year in contrast to groups with 10+ members previously. Finally, I would be the only young adult to go, and the large age gap was evident to everyone. Knowing this I constantly received the same question from my peers and those close to me. Why was I going? To be honest I did not have a great answer at the time, and found myself wondering the same thing. Yet

I always had this feeling that I must serve on this mission trip even before I was made aware of the mission happening. Without a doubt now, I truly believe that God was telling me to go to Villa El Salvador in Lima and to serve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looking back I am so glad and humbled I listened.

This team started its journey on a quiet bus ride of 4 people on their way to the airport, wondering what these next two weeks had in store for them. By the end, we had grown into an nothing short of a family which included myself, Romano 선생님, Sebastian 선생님, Scholastica 선생님, Yacil, and all the sisters with the bond that can only be forged through the will and love of God.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this family coming together was the mission we were tasked with this year to bring to this beautiful community.

A favorite and lasting memory from this experience will be the actual mission that we accomplished this year. The goal was to construct a suitable and comfortable house for a large family that had been living in



새벽묵주 기도 후



비야 빅토리아 급식소 방문

one room together in a missionary building. Every morning we trudged to the very top of the hill overlooking Lima already sweating from the walk alone, and worked tirelessly to build a house for the family of Señor Fredo, Señora Emilia, and their children. I can only thank God for giving us the strength and perseverance from the start to see this through together, as it was very tedious and muscle aching work. From every single nail that was hammered to every single plank painted, our group worked extremely hard to ensure that this loving family could have a haven they could call home. Somewhere they could sleep together, eat together, and live as a family which many of us take for granted. By the end of the week, we finally raised the house, and as the priest blessed the house, I believe at that moment we

witnessed a true testament of the strength a man can have by the Love of God. In front of an entire congregation, the father on the verge of tears thanked us individually from the bottom of his heart on behalf of his family. That will stay with me for a lifetime, and I then realized that the missions we do are entirely worth every moment because no matter how small or short they feel, we can truly impact someone's life and the lives of those who they care about.

Another memorable part of our mission trip was the emphasis on prayer. Like many others I'm sure, waking up at dawn to recite prayers and attending mass at 6 in the morning is not usually how I start my Mondays. I frankly must admit, prayer has always been something of a weakness in

my own faith as I feel I don't pray nearly enough on a consistent basis. Often I find myself praying only when I feel in need or wanting to achieve a goal, and often simply going along with the motions of mass, from the gospel to the receiving of the Eucharist. However as we practiced this every morning with the sisters, I found myself thoroughly engaging, and frankly enjoying the process. Not only was morning prayer a way to state my intentions for the day and ask God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our team, but also to simply take a moment of my day to pray and think about those who are in my life. The same could be said for the daily mass. Receiving the Eucharist every morning helped me truly understand how much the body of Christ nourished me spiritually as we prepared for the long day. Although these weren't by no means my favorite moments of this mission trip, they're the two that I had the biggest takeaways from and have started to incorporate in my own day to day life.

Finally, working with kids has always been something I have been very passionate about, and teaching Taekwondo to this group of wonderful children has only added to that passion. As we crawled down the mountain every evening from a long day of housebuilding, it felt as though there was quite literally zero energy in my bones. Slightly filled with dread of the idea of having to run around even for a second longer, all I wanted to do was lie down and take a long

nap until dinner. However, as with each step we walked closer and closer to the learning center, the laughter and yelling of the children grew louder and louder. Suddenly all of my energy would surge back into me, and as soon as we took just a step inside it would be an hour of non stop roundhouse kicks and face blocks! Seeing how much love, energy, and excitement these kids had was beautiful to watch. The eagerness to learn the techniques of not only Taekwondo but also the cultural differences of Korea as well truly touched my heart, and to know they will take these learnings back to their own families and communities brings a very gratifying feeling.

As this journey has come to an end, I can genuinely say I felt that I have grown in my faith and as a person spiritually. Through the glory of God, I was able to experience how incredible the people of Peru are, and serving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makes me realize just how much I love to do it.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I will be back to serve in the very near future. To the reader I hope this testimony finds you well. In my words I have tried to describe just how surreal and eye opening this journey was. I ask that you pray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Peru, and hope that you will join me in the future on the Peru mission trip!

All glory to God, Thomas

PERU-VILLA EL SALVADOR

Es una bendición de Dios aqui con los niños cada día.

어린이들과 매일 함께하는 것이 하느님의 크신 축복

Cecilia Marita Rondoy Mendoza(산 마르틴 공부방 교사)
번역 | 이 글라리사 수녀



Mi Nombre es Cecilia Marita Rondoy Mendoza, trabajo con la hermanita Clarisa junto a la profesora Nieves, donde somos un equipo de trabajo.

En reforzamiento escolar hay un clima de trabajo muy bonito, ordenado y tranquilo.

Asisten niños de diferentes grados a realizar sus actividades escolares, donde se les ayuda a realizar sus tareas. Los niños vienen contentos a participar en reforzamiento escolar. También es una bendición de Dios aquí con los niños cada día.

제 이름은

Cecilia Marita Rondoy Mendoza입니다.

저는 글라리사 수녀와 Nieves 교사와 함께 공부방에서 한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매우 아름답고 질서 있고 차분한 환경입니다.

다양한 학년의 어린이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 참석하며,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숙제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공부방에 기쁘게 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매일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느님이 주신 하나의 크신 축복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아주 특별한 여름

함 소피아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에페 3, 20)

먼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저를 통하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세상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당신의 작은 종들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안겨 주신 좋은 예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하고자 하시면 이보다 더한 일도 원하시는 순간 그대로 이루고도 남으실 텐데, 이 보잘것없는 손을 빌리심은 그 공로를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사랑이고 축복이기에, 제 영혼이 환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재속가르멜회에서 수련 중인 평신도이자, 세상 속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사회공헌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니,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월급쟁이’입니다. 늘 그러하셨듯, 주님의 계획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러나 어떤 실수도 없이 완전

하셨습니다. 올해 3월, 지난 10여 년간의 해외 봉사 국가를 바꾸면서, 생전 관심도 없었고 가 본 적도 없던 중앙아시아 3개국이 난데없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카자흐스탄’으로, 특히나 꼭 집어 알마티에서도 무려 4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는 ‘탈디코르간’이라는 마을로 모든 상황이 술술 풀려 나갔습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연고 하나 없는 이슬람 국가 카자흐스탄. 세상에, 그 마을에 성당이 있고, 한국 수녀님들이 계시고, 때마침 수녀님 한 분이 하루 전날 한국에 나와 계시고, 우리 집 근처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주님의 계획이네요! 그렇게 출국 전날 저녁, 안양의 작은 빵집에서 온화한 카리스마의 살레시아 수녀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 여정에 이미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첫새벽 5시에 어렵게 찾아간 성당, 그날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 기념일이었고, 성전에 모셔진 성인 유해와 성상 앞에서 강렬히 느꼈던 성인의 현존, 그리고 별처럼 반짝이는 은영데레사 수녀



님과 모든 추억이 생각나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세상이 잠든 새벽, 봉사단 숙소로 매일 차를 몰고 데리러 와 주신 수녀님과 마치고 구약성경 아가의 여인들처럼 기쁨에 넘쳐 성전으로 향해 가던 좁은 시골길, 길가 꽃나무들, 고요한 새벽 성전에서 수녀님과 단둘이 바치던 성무일도(수녀님의 피꼬리 같은 천상의 목소리에 저는 부끄러워 소리를 낼 수도 없었지요), 성체조배 중 문득 눈을 들면 제대 위 작은 스테인드글라스 사이로 눈부시게 쏟아지던 아침 햇살, 떠나던 날 수녀님께서 차려 주신 아침 밥상, 그 따뜻한 미역국과 샐러드 향기, 수녀원 앞마당 달팽이의 작고 느린 몸짓까지 생생하게 다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총이었습니다.

오!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좋으신 주님은 함께 간 임직원 봉사단의 손을 통해서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께 기쁨과 사랑을 전하도록 8일 동안의 모든 일정을, 날씨가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도 조용히 다 이루셨습니다. 성당의 부서진 지붕 철골과 비가 새는 한글 교실 지붕을 고쳐 주셨고, 교실에 에어컨을 달게 하

셨고, 더위가 지나가는 지금은 곧 수녀원 앞마당 바닥 공사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사랑을 전하시는 수녀님들의 귀한 봉헌을 통해서 이슬람 땅과 하늘 가득 당신의 사랑과 복음을 펼쳐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보고 싶은 살레시아 수녀님과 은영데레사 수녀님!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 주실 때까지 늘 평안하세요! 척박한 카자흐스탄 땅 가득히 복음의 기쁨이 가득 꽃피고 열매 맺기를 기도드리며, 이 말씀으로 소피아의 사랑을 전합니다.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 주시리라”
(시편 37, 5)

후원자 명단



LIST OF DONORS

강복희	김미환	김윤순	민영석	설한별	엄신영	이덕아	이인영
강선이	김미희	김익수	박로사	성주경	여효정	이데보라	이재구
강신하	김봉규	김정옥	박기분	손주영	오규훈	이두희	이정석
강영옥	김상연	김정자	박기주	송경애	오미경	이마리아	이정은
강찬우	김상훈	김정희	박노형	송미현	오미숙	이모니카	이정호
강카타리나	김석준	김종석	박동규	송민선	오미정	이모니카	이제인
고순희	김선영	김종인	박동욱	송선주	오용희	이미림	이종규
고은주	김성희	김종호	박명숙	송세시리아	오은미	이미카엘	이종원
고희선	김숙자	김지현	박명자	송영자	오진숙	이민수	이준희
공덕귀	김숙희	김진숙	박수산나	송한준	오창선	이보리나	이창기
공베로니카	김순례	김진영	박아네스	신동현	오태성	이상규	이창현
공석초	김스테파노	김창대	박안나	신두규	오현배	이상철	이철세
곽실비아	김승옥	김채성	박안젤라	신시영	오현이	이선주	이춘명
곽인애	김시가	김철애	박영철	신영숙	오혜숙	이섬주	이춘자
구미희	김시몬	김철익	박용민	신한철	우원하	이성춘	이크레센시아
구제인	김신	김카타리나	박정선	심재경	원미자	이성훈	이프리실라
국신옥	김안토니오	김현옥	박중근	심재정	유문권	이소희	이해숙
권경희	김애경	김호중	박흥제	안나	유상순	이수정	이향희
권수정	김양희	나승경	박희성	안대인	유요안나	이숙기	이현숙
권요안나	김영복	나이정	박희숙	안덕호	유혜령	이숙희	이희병
권일	김영신	남상유	배웅진	안산인	윤명철	이순익	이건호
권태영	김영자	남양순	백테레사	안상희	윤석우	이순희	임복단
김건호	김옥순	남일현	백미숙	안요셉	윤성업	이승연	임상무
김경숙	김용준	노소피아	백성무	안진이	윤종욱	이승철	임숙자
김경애	김용진	노카타리나	베로니카외2명	안천일	윤태규	이시형	임승욱
김나리	김용택	노현주	변종찬	안혜경	윤현주	이연심	임아네스
김데레사	김우택	마리앤수녀지인	비비안나	양경철	윤혜련	이요안나	임연순
김명순	김유광	모요선	서바오로	양규진	윤혜연	이용명	임혜수
김미나	김유미	문경화	서장	양베네딕도	이경숙	이우용	장민선
김미혜	김유석	문정순	선우	양호	이기숙	이유경	장순애

후원 문의



INQUIRY

+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미주지부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U.S.A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U. S. A.
 (Sr. Emma Jeon / 전 엠마 수녀)
 Tel | 1-714-521-1345
 H.P | 1-714-383-3585
 e-mail | emma2171@hanmail.net

+ 한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례로15라길 2-18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우 | 02706
 Tel | 02-2171-1551

후원자 명단



LIST OF DONORS

장영자	정수원	조루시아	주경숙	채운정	최준태	한경옥	홍경희	황사라
장윤숙	정영진	조보니파시아	주경자	천정순	최필선	한미영	홍보근	황이선
장현수	정우영	조성재	주명자	최경자	최현주	한인숙	홍영옥	황혜진
장현진	정재욱	조엘렌	진영서	최미숙	추춘득	한정희	홍은숙	
전광석	정자넷	조영광	차문영	최숙자	태은경	함성미	홍인길	다수의 익명 후원자
전양주	정준영	조영섭	차상희	최양수	편프란치스코	허경재	홍인식	
전영민	정춘자	조영이	차영우	최윤주	표준희	허성일	홍진숙	
정남숙	정태아	조우직	차운규	최윤지	하가타리나	허정옥	홍진일	
정상희	정현숙	조인숙	차윤지	최은경	하애란	허희	황규택	
정선희	정홍진	조해웅	채대기	최재원	한경숙	형영란	황보요셉	
김부섭, 유보경 부부		문소영, 이경원		케빈 사장님	딘홍	Michelle Suh	Soon Kim	안나
김숙, 신현철		윤스텔라, 루까		고영	Alex Cho	Paul Kim	요한	
김요한, 엘리사벳		최규분, 김성기		동방	Lydia Behi	Sally o'Brien		
(주)대방수산		우물가후원회		(사)부산시행정동우회		부산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주)한양정밀		나보파스장학회		(재)천주교대구대교구		부산 남천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신기메디텍㈜		비타민엔젤스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부산 인락성당해외선교후원회		
ABC동호회		한국요셉의원		(사)교황청전교기구한국지부		의정부 백석동성당 빈첸시오회		
K-FOOD		(재)협성문화재단		독일-레노버비스(일사-단체)		서울 청담동성당 로사리오카페		
아싸마트		아를란타 선교기금		서울 청담동성당 빈첸시오회		선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경나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춘천 임당동성당 빈첸시오회				

한결같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본회 수녀들이 선교하는 페루(칸가리 공소, 비아 엘 살바도르, 칸토 그란데), 필리핀(나보파스), 카자흐스탄 그리고 베트남의 어려운 이웃들과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금 송금



REMITTANCE

신한은행 140-006-010754
(재)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국민은행 036137-04-001127
(재)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하나은행 121-910004-74004
(재)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미국에서는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미주지부로 문의하시고,
한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SUPPORT GUIDE >>>

CONTACT KAZAKHSTAN



Katholic Church Biazhan sal 145
Taldykorgan 140008, KAZAKHSTAN
(Sr.Eunyoung Theresa / 오 은영데레사 수녀)



7-7282-245-002



7-775-960-2731(오 은영데레사 수녀)
7-702-196-1770(한 살레시아 수녀)
7-775-694-2019(강 파우스티나 수녀)



eyt633@hanmail.net(오 은영데레사 수녀)
hanss@catholic.ac.kr(한 살레시아 수녀)
Sfaustina@hanmail net(강 파우스티나 수녀)

CONTACT PERU-VILLA EL SALVADOR, LIMA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0066, Lima 35, PERÚ
(Hna.Clarisa Lee / 이 글라리사 수녀)



51-1-292-2327



51-937-411-504(이 글라리사 수녀)
51-958-736-605(송 리사 수녀)



villaperu@hotmail.com
cafe.daum.net/solph-peru

CONTACT PERU-CANGARI, HUANTA -AYACUCHO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10, Huanta Ayacucho, PERÚ
(Hna.Eunkyung Agnes, Park / 박 은경아녜스 수녀)



51-932-449-968(박 은경아녜스 수녀)
51-958-733-136(김 마리후꼬 수녀)



cangariperu@hotmail.com
cafe.daum.net/solph-peru

CONTACT
VIETNAM



174/35 Tam Châu, Tam Bình, TP Thủ Đức,
TPHCM 71300
Hồ Chí Minh, Vietnam
(Sr.Mari Ann, SOLPH / 김 마리앤 수녀)



84-076-9074-487(김 마리앤 수녀)
84-076-8780-247(김 시릴로 수녀)



rose-mira@hanmail.net(김 마리앤 수녀)
skgod299@hanmail.net(김 시릴로 수녀)

CONTACT
VIETNAM-DA NANG



Số 20 Trần Hữu Độ Phường khuê Mỹ, Quận Ngũ
Hành Sơn, TP Đà Nẵng (DONGSIMKINDERGARTEN
NGU HANH SON DA NANG), Vietnam
(Sr.Maririta Kim, SOLPH / 김 마리리타 수녀)



84-903-786-101(김 마리리타 수녀)
84-076-9074-485(백 글라라 수녀)
84-079-9443-100(김 마리레나 수녀)



kimheeja1214@gmail.com(김 마리리타 수녀)
cl583@hanmail.net(백 글라라 수녀)
m-rena@hammail.net(김 마리레나 수녀)

CONTACT
PERU-CANTO GRANDE, LIMA



페루선교센터
JR.CARLOS DE LOS HEROS 738 PUEBLO
LIBRE 15084 LIMA, PERÚ
(Hna.Speranza shin / 신 스페란자수녀)



51-1-359-5855



51-920-753-030(신 스페란자 수녀)
51-986-501-518(박 임마누엘 수녀)



smsprz@hanmail.net(신 스페란자 수녀)
manuel592@hanmail.net(박 임마누엘 수녀)

CONTACT
PHILIPPINES-NAVOTAS



San Lorenzo Ruiz Parish
(Tahanan ni Maria)
Phase 1-C Kaunlaran Village,
Navotas 1409 Metro Manila, Philippines
(Sr.Gabriela, SOLPH / 김 가브리엘라 수녀)



63-2-8652-7714



63-0969-174-6992(김 가브리엘라 수녀)
63-0939-332-4146(정 유딧 수녀)
63-966-271-6663 (김 루체수녀)
63-928-421-0722(최 요세핀 수녀)



gabi59@hanmail.net(김 가브리엘라 수녀)
ju395@hanmail.net(정 유딧 수녀)
sisterluce@hanmail.net(김 루체 수녀)
josephine.657@daum.net(최 요세핀 수녀)
cafe.daum.net/solphphilppin